

이사장 취임사

친애하는 조합원사 대표 여러분!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2015년 정기총회에서 제7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주)국인산업 대표이사 박무웅입니다.

금년은 조합 창립 1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써 역대 이사장님들의 지대한 노력과 열정으로 오늘의 조합이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경복 이사장님의 경우 정책당국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회 각계각층과의 협력체계를 확보로 우리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전임 김영중 이사장님께서서는 정책기관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정책 집행에 설득력 있는 논거와 명분도출로 정부와 국회·유관기관 등에 신뢰를 구축하여 정부가 우리업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자기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업계의 원로님들과 젊은 대표님들의 열정적인 관심이 조화를 이루어 오늘의 조합이 존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업계 모두가 열정으로 다져온 조합의 선장이라는 막대한 소임을 맡은 저로서는 믿고 지지해주신 대표자님들의 기대와 바램에 부응하고자 심기일전의 각오를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우리업계는 국가의 온갖 보호 장벽에서 성장해온 다른 업종과는 달리 오로지 우리의 노력만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우리업계가 이러한 난관에 봉착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소각산업의 에너지기업 불인정” 내지는 “재활용 육성정책”이라는 결론을 놓고 만들어가는 폐기물 정책기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업계의 존폐를 우리의 동의 없이 결정짓는 작금의 사태를 더 이상은 안일하게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업계는 “소각·매립부담금”, “SRF제도 시행”,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등 예상치 못하게 제기되는 정부 정책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또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지속적인 대응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앞으로 이 같은 생존다툼에서 우리업계를 지키고, 나아가서는 지금보다 더욱 안정된 환경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조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업계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기관과의 소통으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전임 김영중 이사장께서 정책기관과의 관계개선 및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 폭넓은 창구를 개척한 바, 그에 따른 정책기관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지속하고 필요할 경우 우리업계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모든 정책들은 정책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결정됩니다. 정책에 관계된 정부,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들과의 소통으로 우리가 목표한 것에 가장 근접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둘째, 소각업계 통합체계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원사는 물론 비조합원사와 유관업계를 망라하여 전체를 아우르며 단합과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추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각업계 전체의 한 목소리와 뜻을 같이하는 유관기업 단체들의 지원과 협력체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임이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설명회, 방문상담 등을 적극 추진하여 통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조합원사 이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조합을 이끌겠습니다.

정부의 재활용 육성정책으로 인하여 물량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고품연료 제품 제조·사용시설 및 소형소각시설 운영실태 점검, 부적정 용역입찰 집중 대응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물량확보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금년부터는 11월부터 명년 2월까지를 “비수기 대비 물량확보 극대화기간”으로 설정하고 조합 임직원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 동절기 물량난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조합원사 대표 여러분!

에너지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업계로서는 반드시 이 모든 난관을 개척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정부의 관심이 우리에게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력하나마 제게 맡겨진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지도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조합을 이끌어 오신 김영중 이사장님과 역대이사장님들의 치적에 누가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며, 취임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2월 27일

한국산업폐자원공제조합

이사장 박무웅